

華僑/(中) 그들의 꿈은... (조선일보 2003.02.07)

[마이너리티 리포트] 華僑/(中)그들의 꿈은...

"세계華僑돈 유치해 차이나타운 건설"

許仁貞기자 njung@chosun.com

崔炯碩기자 cogito@chosun.com

입력 : 2003.02.06 19:00 23'

서울 연희동 신라빌딩 301 호에 세 들어 있는 화교경제인협회 20 여평 사무실은 이번주 내내 계속되는 축하전화로 잔칫집 분위기였다. 2005 년 개최될 세계 화상(華商)대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지난 2 일 전해졌기 때문이다. 강력한 후보지였던 일본을 제치고 거둔 값진 승리였다.

화상대회 개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화교경제인협회 원국동(袁國東) 회장은 “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이나타운 건설에 실패한 한국 화교들이 화상대회를 유치한 것에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”이라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.

화상대회는 세계 화교 기업인들이 2 년마다 모이는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행사이다. 2001 년에는 주룽지 총리가 직접 유치전에 나서, 중국 난징(南京)시에서 5000 여명의 화교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가 열렸다. 이 대회를 위해 중국은 무려 1 조 4000 억원의 예산과 5000 여명의 인력을 동원했다. 중국에 매년 투자되는 200 억달러 이상의 해외자본 중 절반이 홍콩·대만·싱가포르 등지의 화교 기업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.

원 회장은 “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가 2 조달러 이상의 유동자산을

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, 각국은 화상대회를 통해 화교 자본을 유치하는 데 혈안”이라고 말했다.

원 회장이 화상대회의 서울 유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99 년이다.

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 5 차 화상대회에 참석했을 때 호주 대표가 “나는

화교지만 호주인이다”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. 원

회장은 “화상대회 참석 후 나는 ‘중국계 한국인’으로, 한국과 한국

땅에 살고 있는 화교를 위해 일하겠다고 마음을 굳혔다”고 말했다.

화상대회 유치에 성공한 한국 화교들의 다음 목표는 차이나타운

건설이다. 화상대회와 차이나타운 두 가지는 모두 해외 화교자본의 국내

유치라는 고리로 연결돼 있다. 한성화교협회 장원락(張元樂)

대의협력부회장은 “한국 화교들의 경제력은 정말 미미해, 해외 화교

자본을 끌어들이 한국과 화교가 함께 발전하는 데 관심이 크다”고

말했다.

중국 정부 역시 한국 내 차이나타운 건설에 적극적이다. 중국대사관

허택우(許澤友) 총영사는 “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세울 때마다

차이나타운 건설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”며 “차이나타운이

건설되면 화교의 지위도 향상되고 한국 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

것으로 본다”고 말했다.

지난 2000 년 인천시가 차이나타운 부지로 결정한 송도 20 만평 매립지는

현재 투자를 기다리며 허허벌판 상태로 비어 있다. 인천 중구청은 100 년

이상의 화교 정착 역사를 갖는 북성동 일대를 ‘화교촌(華僑村)’으로

지정했지만, 중국풍 동사무소와 패루(牌樓·시가에 서 있는 중국식 문),

10 여곳의 중국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차이나타운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.

화교촌에서 중국음식점 태화원을 운영하는 손덕준(孫德俊) 사장은 “정부가 차이나타운을 건설한다고 발표만 해 땅값만 올려놓지 말고, 적극적으로 은행 대출 제한이나 건물 재건축 규제 등을 풀어줬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 변변한 주차시설 하나 갖추지 못해, 중국 관광객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잊혀진 장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.

원국동 회장은 “한국 화교들은 모두 한국의 발전과 화교의 발전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”며 “2005 년이 한국 화교가 새롭게 탄생하는 원년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http://www.chosun.com/national/news/200302/200302060354.html>